

영세공장(작업장) 특별소방안전점검

포천소방서, 2천597개소 대상 화재예방특별대책 추진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화재에 취약한 1천㎡미만 영세공장(작업장) 2천597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10월1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의왕시 화장품용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직원 6명 사망, 2명 중상을 입은 화재에서 나타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고의 근절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3년간 관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화재 330건, 인명피해는 부상 1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00건, 2005년 131건, 2006년 99건으로 연평균 11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

5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대상은 ▶소방시설 작동상태 ▶피난시설 확보 여부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가스시설 사용 여부 ▶방화관리 및 자위소방대 운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사업주 및 전 종사원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초기대응 및 피난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공장의 경우 허가 후 사용토록 하는 한편 건축·전기·가스분야 등은 관련 허가관청이나 부서에 통보,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장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위험시설 등을 교체할 경우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금을 앞선, 화재발생시 동종업체에 사고사례 전파 및 교훈 등 정보 제공, 업체별 안전관리매뉴얼 제작·배포(외국어 소방안전행동매뉴얼 포함) 및 교육을 실시 등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도 수립하였으며, 취약대상 공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등 일선 소방서 간부들이 매월 1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포천시의 공장현황은 오산시, 광주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화재에 취약한 영세공장(작업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화재



포천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1천㎡미만 영세공장(작업장) 2천597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10월1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노마(老馬)와 개미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군주 환공(桓公, 685~643BC)은 여러 차례 제후들간의 동맹을 체결하여 춘추시대 첫째 패왕이 되었던 사람이다.

한번은 그가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군사들은 오랜 전쟁과 긴 여정 속에서 몹시 지쳐 있었다. 실상 가상으로 그만 오던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환공은 난감한 나머지 충성스런 신하 관중(管仲)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했다.

"허! 이런 낭패가 다 있나?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군사들을 쉬게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신하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폐하, 이런 때에는 늙은(老馬)발에 길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저 뒤에서 마차를 몰고 있는 늙은 말을 앞으로 세우게 하십시오."

관중이 제안 한대로 늙은 말이 앞으로 나왔다. 앞으로 옮겨진 늙은 말은 잠시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한 방향으로 향해 걸어 나갔다. 모두가 이 말을 따라갔다. 과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눈앞에 바르길이나 나서서 무사히 행군할 수 있었다.

한참을 행군하다 보니 이번에는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 때문에 야단칠이었다. 심한 갈증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군사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환공은 또 다시 신하들을 불러서 그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다.

"폐하, 개미들이 집을 짓는 곳은 여덟 자만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개미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파게 했다. 과연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모든 군대가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처럼 때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마물인 늙은 말과 개미가 오히려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통해서 늘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한다.

잠언서 6장6절 "게으른 지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문의) 031-532-2489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통일 후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제언-1

서희석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 후 북한에 대한 토지개혁 등으로 박탈된 토지 소유권자들은 통일 후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것이고, 현재 토지 이용자들은 이 용권에 대한 기록권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사회적 불안 조성이 우려되며, 남북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리가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할지에 관해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기에 정리하였다.

북한은 과거 정권을 성립하면서 그 정당성의 한 근거로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 토지개혁법'에 의해 빈농·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 지에 조직하고 그 토지 하에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였다. 일민인·민족반역자·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 등이 면제되었고 매

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지주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과되었고, 토지개혁에 우호적으로 스스로 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반항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에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써 전 경지 면적의 50%에 달하는 98만 1,390정보가 72만 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농촌의 계급관계는 크게 달라져 지주 계급이 청산되고 부농이 위축된 반면, 소작농·빈농·농업 노동자들이 농촌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하여 당과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1960년의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었다. 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경협, 특히 금강산 관광 등은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동·서북의 통일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동·서 이념 대립의 구도를 주도하였던 양측의 하나인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구소련의 지배를 받아왔던 위성국들 중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포기하고 체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은 우리나라의 통일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실상 가상으로 계속된 수해와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마저 겪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에너지·외화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 3.7%를 기점으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물론, 나진·선봉지역 746km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되고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상외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여러 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푸르른 삼천리 금수강산 후손에게 물려주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신승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포천시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6월2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회원들은 인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삶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아래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여 폐허된 환경을 복원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르른 삼천리금수강산을 우리의 손으로 물려주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따라서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위해 참살이 세계로 가는 포천시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슬로

건을 걸고, 8월30일 포천시청 환경자원과 청소부서와 함께 신승천 일대 청소에 나섰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고, 돼지풀 제거 작업과 도로변 쓰레기들을 주워 모았다. 40여명의 단원들이 저마다의 일들을 뒤로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포천시의 환경은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포천시지회 이진복 지회장을 비롯 한 모든 회원들은, 단속이나 적발 또는 고발보다는 포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개선 위주로, 활동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정 주부명예기자단 신복면지부장 jee67@naver.com



지난 8월 22일 포천시 영중면사무소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수산 출구인 관모봉(冠帽峯) 등산길을 위하여 이정표를 설치했다.

낙후지역 관련법 재개정 건의안 채택

이우형 도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만장일치 통과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출신 이우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건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이우형 도의원은 "북부지역은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 등 468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대규모 훈련장 9개소 등 72개소의 크고 작은 군 훈련장이 밀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북부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연중 포사격과 대규모 훈련, 군사활동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이우형 경기도의원은 미군공여지 특별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대표발의했다.

안과 관련,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동북부 자연보전권역도 향후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 모집공고

포천신문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사취재 후 제공 및 제보 등을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기자단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자 격

1. 포천신문에 보도할 기사작성 및 기사제보 할 능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초·중·고등학교 현 어린이회장·학생회장 또는 회장을 역임한 학생
3.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위의 자격을 갖춘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모집인원 : 00명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포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학교장 추천서 1부(형식제한 없음)

◆모집마감 : 2007년9월28일 (금) 17:00까지

◆접 수 처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주)포천신문사
☎ 031-542-1506~7, FAX 031-541-9117

